

냉랭한 호남민심 돌리기 ‘통합’이나 ‘맞불’이나

새정치, 국정화 국면에도 지지율 하락...내년 총선 참패론 “신당과 께안자” “호남출신 인사로 승부수” 대책 분분

새정치민주연합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호남 민심에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10월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돌아선 호남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부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조짐을 보이고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참패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유리한 정국에서도 정치적 ‘안방’인 호남에서의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지지부진했다.

한국갤럽 조사가 따르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지난달 27~29일 37%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 3~5일 조사 때는

32%로 떨어졌다. 10월 한 달 내내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음을 감안하면 정치적 뒷받침 호남의 지지를 치고는 참혹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통합론’과 ‘맞불론’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통합론은 당 밖의 신당 세력을 께안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의 부정적 여론이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아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총선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 등 주류 진

영이 백의종군을 통해, 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통합이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라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천정배·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등 신당 추진 진영에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합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치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류 진영 일각에서는 ‘맞불론’을 내놓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임종석 서울시정무부시장은 전 의원 등 수도권의 호남 출신 인사들을 차출, 호남에서 신당 세력과 한 판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감

한 물갈이와 신진 세력들의 공천 등이 맞물린다면 호남 민심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맞불론’은 당사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송영길 전 시장, 임종석 전 의원 등 수도권에서 성장한 호남 인재들을 지역 구도에 가두는 것은 물론 호남의 정치적 자산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맞불론, 차출론 등은 호남사람들끼리 전쟁을 붙이자는 것이며 주류 진영 일부 인사들의 근시안적인 정치공학계 계산”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류 진영의 백의종군 등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총선 비전 제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람잘날 없는 ‘새정치’

비주류, 지도부 개편·통합선대위 구성 압박...갈등 격화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잠시 잠복상태로 있던 당내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비주류 모임인 ‘민중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9일 오찬 회동을 한 뒤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 “국민의 존엄을 심판받아야 하고, 하루빨리 당의 혁신과 단합, 아권통합과 대단결을 통한 총선승리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집모는 이날 “문 대표는 거듭하는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고, 총선승리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집모는 또 “박근혜정부의 민생경제 파탄과 노동개혁,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국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우리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승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표는 10·28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런 성찰도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지지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김영환·오세재·김동철·장병완·황주홍·유성엽·최원식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민집모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통합선대위대회 개최를 일순위로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지도부가 2선 후퇴하고 대표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선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 대표가 통합선대위에 참여하더라도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명인 ‘N분의 1’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싼 비주류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규성 의원은 지난달 중순 8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는데, 이 방안대로라면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 위 의 평가결과가 무력화되고 전라공천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주류와 비주류는 물밑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서 특단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당분간 당내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인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총선 광주 차출설 송영길·임종석 “말도 안되는 얘기”

“지도부 문제 해결 능력 부족

호남 통합해야 승리

공동 지도체제로 가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호남 ‘차출론’과 관련, 당사자인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임종석 서울시정무부시장은 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된 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전 시장은 광주 서구 을 출마설과 관련, “결정된 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나의 출마를 떠나 광주와 호남의 힘이 통합돼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광주 서구 을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답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위기 타개책과 관련, 송 전 시장은 “문재인 대표도 문제지만 최고 위원회가 문제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최고위가 공동 선대위 등으로 권한을 이양, 공동 지도체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호남 정치 위기와 관련, 송 전 시장은 “호남 정치인들이 당 대표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호남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토크쇼서 만난 朴-宋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토크쇼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광주 차출설과 관련, “전혀 근거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필적 뒤었다. 임 부시장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고 있다”며 “서울에

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며 정치적 도의”라고 잘라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에서 국회의원 3선에 이어 민선5기 인천시장을

지냈다.

임종석 서울시정무부시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하고 서울 성동구에서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내일 광주서 ‘새로운 길’ 창립

신당 창당 외곽 지원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외곽지원할 ‘새로운 길’을 창립한다.

‘새로운 길’은 11일 오후 4시 CMB 광주방송 컨벤션홀에서 300여명의 추진위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9일 밝혔다. ‘새로운 길’은 천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사실상 광주·

전남지역에서 창당준비위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후에는 천정배 의원의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길 관계자는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주어진 과제라 믿는다”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輿 ‘팩스 입당’ 김만복 출당 사실상 확정

윤리위 징계절차 착수

새누리당은 최근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해당(懲儻) 행위 관련 징계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예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

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 기장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